

세계사에서의 무기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IV-(2)



許重權

육군 제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육군 중령, 역사학 박사

적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은 가능한 곳에서는 적보다 높은 지형에 위치함으로써 중요한 이점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위치 선정은 화기의 사거리를 신장시켰고 충격을 가하는 데에 소요되는 육체적인 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충격시의 효과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칼과 창을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통상적으로 케사르는 그의 정예 대대들을 레지온의 첫번째 열에 배치하여 전투의 최초 충격으로부터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였다.

■ 경보병

레지온의 작지만 중요한 구성부대는 speculatores라 불린 10개의 척후조로 구성된 분견대였다. 사실 이 부대들은 일종의 搜索偵察部隊였다. 여러 개의 레지온 분견대들은 집단군의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되기도 하였다.

레지온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로마군의 경부대나 예비부대들은 대대와 유사하게 조직되었다. 이전의 velites처럼 이러한 예비부대들은 본연의 임무인 측방이나 전방에 대한 遮障 임무와 같이, 레지온의 대대처럼 정규 전투대형으로 작전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가장 훌륭한 경보병 부대는 Cisalpine Gaul 지방의 리구리아에서 보충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레타 섬과 에게해의 섬들에서 弓手들이 보충되고 발레아릭 섬들에서 投石手들이 보충되었다.

■ 기 병

equites 또는 귀족으로 구성되었던 구식의 기병 부대는 마리우스 치하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기병의 중요성과 기병의 중요성에 비례하는 상대적인 능력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기병부대를 공급하기 위하여 동맹국들 및 용병들에 로마는 이전보다 더 의존하였다.

마리우스 시대에 기병부대원들은 타라스와 아프리카로부터 주로 공급되었고 스페인으로부터도 일부 공급되었다. 케사르는 거의 대부분 갈리아인 및 독일 용병들과 동맹국들로부터 기병부대원들을 보

충하였다.

그러므로 로마군 기병부대의 조직과 훈련은 레지온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덜 공식화되어 있었고 덜 정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로마군의 지휘관들은 그들 휘하의 기마병들에게 실질적인 규칙성을 부과할 수 있어야 했다.

decurion의 지휘를 받는 32명의 기마병은 한 개의 turma라고 불린 기병부대를 구성하였는데, 전투시 4열로 대형을 짰다. 12개의 투르마는 기병대대와 비슷하였는데 하나의 ala를 구성하였고 이것은 호민관의 계급과 비교될만한 한 명의 지휘관에 의하여 지휘를 받았다. 알라는 2 내지 3열을 형성하였고 투르마 사이의 간격은 레지온 대대들의 배치와 유사한 체스 판의 대형을 유지하였다.

■ 레지온의 병사

레지온의 병사들은 대체로 이탈리아 농민이나 도시에 거주한 하급 계층민들이었다. 케사르의 시



전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기병의 모습

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이탈리아인이 로마의 시민이었다. 전 이탈리아를 통한 시민권의 확장 현상은 마리우스의 선도적인 자극에 의하여 대체로 이루어졌는데, 마리우스는 그들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베르셀레에서 동맹국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던 자였다.

그는 전투 騷音으로 인하여 법의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노라고 대답하면서 원로원에 대하여 자신이 내린 조치를 정당화하였다. 케사르의 시대에는 여전히 레지온 병사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인이었으나, 레지온 내에는 다른 피복속인들과 원주민들이 그들만으로 구성된 레지온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탈리아인과 함께 레지온에 혼합 편성되어 있었다.

마리우스 시대에 이르러 아직 애국적인 시민군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였지만, 로마 군사제도의 쇠퇴 현상은 병사들의 충성의 대상을 국가로부터 그들의 장군 지휘관으로 이동시켰다. 병사는 그들에게 로마인 평균 일일 임금에 해당하는 11센트를 지불하는 장군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병사들에게 약탈품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장군이었고 병사가 戰域을 치른 후에 원로원으로부터 보상과 퇴직수당(통상적으로 토지)을 얻게 해주는 것도 장군이였다. 레지온의 병사는 강인하고 완고하였는데, 그들은 거칠고 서투른 유머 감각을 포함하여 가치나 흥미에 있어서 직업 병사들에게서 언제나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였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평균 신장은 5피트 6인치였고 체격은 튼튼하였고 근육은 잘 발달되어 있었으나, 이탈리아인 레지온 병사들은 신체 면에 있어서 체격이 좋은 원주민 적들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케사르 시대에까지 골족과 게르만족에 대한 이치에 맞지 않는 공포심이 아루시오의 재앙으로 인하여 가중되어, 심지어 경험 많은 노련한 병사들에게까지도 개인적인 감정 속에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정규적인 전투대형과 훈련이 자신들을 야만인들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서게 한다고 느꼈으며, 비록 개인적으로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훌륭한 장군의 지휘하에 골족과 게르만족을 상대로 강렬하게 싸우도록 하였다.

그들보다 먼저 활동하였던 시민군이 가졌던 애국심의 미덕은 없었지만, 마리우스 슬라 또는 케사르와 같은 지도자 아래에 있던 전문 직업군인들은 최소한 전투에서의 강인함 면에서는 그들과 동등하였고 훈련과 야외 전투에서 본질적으로 요구되었던 전투 기술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

■ 지휘와 행정

이전의 시민군 제도에서는 백인대장과 트리부네 및 참모 장교들이 징집으로 소집되는 경우 각각의 직책에 임명되었다. 百人隊長은 이론상으로 1년간 병사로 복무 후에 임명되었다. 군의 전문 직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 장교단은 두 계층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평민 신분에서 보충되던 백인대장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한 이후에는 장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가끔 레지온의 상급 백인대장(principilus)이 전투시 지휘권을 갖는 경우가 있었지만, 백인대장들은 현대군의 중대장 직책 이상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상급 백인대장은 일반적으로 숭상 받았던 레지온의 휘장 독수리를 휴대하였다.

트리부네와 그 이상의 야전 장교들은 귀족계층에서 보충되었다. 백인대장과 트리부네의 관계는 현대군의 하사관과 장교와 같은 관계와 유사하였다.

레지온의 지휘권은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6명의 트리부네가 번갈아 맡았고 각 대대는 상급 백인대장이 지휘하였다. 하나의 레지온을 legat이라 불린 한 명의 장교가 지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갔으며, 이 경우에 트리부네들은 참모 장교로 활동하거나, 대대

들을 할당받기도 하고 또 특수임무부대를 지휘하기도 하였다.

케사르가 자신이 지휘한 레지온들에 legate를 임명하는 것을 확립시켰다.

imperator라 불린 장군은 이전과 같이 보급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 몇 명으로 구성된 참모 監察官의 보좌를 받았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통상 젊은 귀족 출신의 comites praetori라 불린 자원 참모 그룹의 지원을 받았다.

장군과 praetorium이라 불린 지휘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투 유경험자 및 신임할 수 있는 레지온 병사들로 통상 구성된 특별 경호부대가 있었다. 스키피오 에이밀리우스가 처음으로 그러한 경호부대를 누만티아 전역에서 조직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 제국 친위대의 기원이 되었다.

장군과 참모들에 의하여 조정된 민군간의 상호관련성은 행정상의 준비를 용이하게 하였다. 초기 공화정 시대의 조직화된 군사사상은 로마인들의 마음 속에 타고난 효율성을 창조하였는데, 그것은 공화정이 기울어가던 시기에도 비록 약화되었지만 계속 유지되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민군 간의 결합 조직은 보급, 군수 및 군사 행정을 크게 용이하게 하였다. 로마인의 뿌리깊은 효율성 추구 정신은 보고, 경제적 통제 등의 체계를 순조롭게 작용하게 하였다.

모든 군은 교량 건설과 포위전에 사용되는 특수 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工兵 장비를 보유하였다. 그들은 작전 지역에서 발견된 목재와 재료들에 크게 의존하였지만,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들을 특수 운반 차량에 탑재하여 운반하였다.

■ 戰域에서의 레지온

로마군은 행군시 현대군의 전방, 후방 및 측방 경계부대와 유사한 부대들을 유지하였다. 각 레지온은 일반적으로 500~550 마리가 탑재하는 화물 트레인

을 동반하였다. 이 화물에는 10명당 1개씩의 가죽 텐트, 비상식량, 할당된 발리스타와 카타폴트 기구 및 부수 장비 등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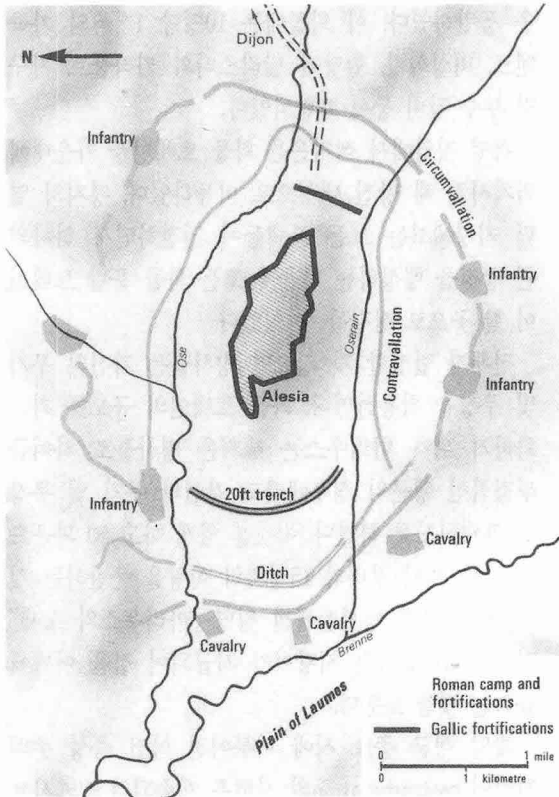
위험 지역에서 레지온은 화물 트레인을 가운데에 위치시킨 채 방진 대형으로 이동하였다. 평지의 열린 지형에서는 모든 부대들이 전진하면서 하나의 큰 방진을 형성하는 가운데 모든 화물 운반 트레인이 한 곳으로 집결될 수 있었다.

전투가 발생할 것 같으면 병사들은 자신의 무기 및 무장을 착용하였다. 화물 트레인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리우스는 레지온 병사들로 하여금 행정적인 행군의 경우이라도 자신의 무기 및 무장을 휴대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쉽게 하고 50 파운드에 달한 개인 장비와 15일치의 식량을 운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병사들에게 일명 "마리우스의 노새"라고 불린 갈라진 지팡이가 지급되어 짐을 어깨에 올리는 것을 도왔다.

매일 행군 종료 시에 이루어진 야전 축성 준비 작업인 castrametation의 시행은 계속되었고 케사르에 의하여 더 발전되었다. 방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한 일반적으로 방진이나 직사각형 형태를 취한 要塞는 지형에 따라 변화되었다.

給水源 부근에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였다. 병력들이 도랑을 파고 성벽과 울타리를 세우며 도로를 구축하는 데에는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되었다. 물론 적대적인 지역 내에서는 나머지 병력들이 요새를 구축하는 동안에 각 레지온의 1/3 또는 1/2 병력은 높은 곳에 올라가 경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요새 구축 작업이 길어질 경우에는 탑들이 통상 세워지고 도랑은 깊게 뚫으며 성벽들은 도착 후 수일간 만들어졌다. 일반적인 야전 요새와 동계용 요새의 유일한 차이점은 오두막 兵舍를 가죽 텐트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알레시아 포위공격은 로마인과 갈 사람들과의 수년에 걸친 전투를 종결시켰다

전통적으로 요새는 局地警戒의 수단으로서만 구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공세적 행동 및 방어적 행동을 위한 기지를 로마군에게 제공하였는데, 로마 병사의 전투 가치를 배가하는 실질적인 수단의 하나였다.

■ 전투 전술

적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인들은 가능하면 적보다 높은 지형에 위치함으로써 중요한 이점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위치 선정은 화기의 사거리를 신장시켰고 충격을 가하는 데에 소요되는 육체적인 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충격시의 충격효과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칼과 창을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통상적으로 케사

르는 그의 정예 대대들을 레지온의 첫번째 열에 배치하여 전투의 최초 충격으로부터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였다.

경부대들에 의한 遮障과 요란 사격이 거의 끝날 무렵, 주 전투 부대가 각각 전진하였다. 레지온은 적과 20야드 정도 거리에 도달하기까지 전진과 지연을 번갈아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전방 열들의 1, 2 열에서 창을 던졌다. 통상 이 경우에 레지온은 반 팔랑스 대형의 산개 대형을 취했는데, 창들이 던져지고 있는 동안에 이 기동은 종종 지연되었다.

방어를 취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및 육체적 효과를 위하여 레지온의 주 전투열들은 언제나 방금 전의 한 팔 길이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요구받았다. 모두 8~10열로 구성된 처음 전선은 최초의 2열만이 칼을 사용하면서 적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

였다.

후방의 다른 열들은 혼전 중에 머리 위로 창들을 투척하였다. 몇 분 후 교전 중에 있는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열이 전방으로 이동하였고 이와 같은 이동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동시에 후방 열에 위치한 병사들은 경부대들에 의하여 창을 공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부대들은 후방과 측방 방어의 임무에 추가하여 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가능한 창들을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때때로 첫 전선 부대의 모든 열들에 속한 부대원이 창을 모두 던질 때까지 최초의 육박전은 지연되어, 검수들 간의 대결 전에 4~5차례의 중사격이 이루어졌다.

처음 전선부대가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압박을 받는 경우에는, 두번째 전선의 부대가 최초 전선 부대 사이의 6피트 간격들을 통과하여 전방으로 이동하고 처음 전선 부대는 회복과 재조직을 위하여 뒤로 물러났다.

마침내 지휘관의 예비부대로써 제3전선 부대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전투를 통하여 각 전선부대들 내에서 각 열들 및 2, 3 전선 부대들 간에도 끊임없는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이동과 대처를 가능하게 한 訓練과 組織이 로마인들로 하여금 야만 적들과 비교하여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였고 훌륭한 지휘관의 지휘 아래 왜 소규모의 로마군이 대규모의 적들을 언제나 격파한 것인가에 대한 주요 설명이 된다.

고대의 경우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한 군대의 死傷者는 통상 상대적으로 경미하였고 패배한 군대의 손실은 종종 경악할 정도였다. 실린더 모양을 한 정방형의 대형 로마군 防牌는 고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패였는데, 이 방패가 헬멧, 가슴 막이 및 정강이 보호대 등과 함께 조합되어 적절하게 사용됨으로써 레지온 병사들은 매우 잘 보호되었다.

그러나 대형이 깨어지거나 측방 및 후방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고대 군대의 대형은 매우 취약하였다. 그와 같은 타격을 받는 경우 군대는 정렬되기 어려웠다. 도망갈 수 있는 병사들은 도주하였고 다른 병사들은 살해되거나 포로가 되었다. 승리한 군대의 경우 전사자보다 부상자가 3~10배가 많았다. 패배한 군대의 경우 살아남은 부상자는 거의 없었다.

소규모 미사일 발사 기계의 사용이 증가하였는데, 케사르 시대에 이르면 각 레지온은 소규모의 카타폴타와 발리스타를 각각 30대씩 보유하고 있고 각 기계들은 10명의 병사가 운용하였다. 이러한 기계들은 포위 공격, 야전 요새의 방어 및 도하 작전시 엄호용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무기들은 야전 전투에서의 초기 상황 및 중보병 전선부대의 실제적인 충격 행동 이전에 역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갈리아 전쟁, 기원전 58~51년

■ 기원전 52년 7~8월. 알레시아 포위전

베르킨게토릭스는 강력하게 요새화된山城 알레시아로 후퇴하였다. 그는 90,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케사르는 40,000명의 레지온 병력과 15,000명의 예비병력 및 5,000명의 충실한 게르만 갈리아 기병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케사르는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골 군대를 알레시아의 성벽 안으로 몰아 넣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장 14마일에 이르는 보루와 대루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가공할만한 공병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케사르의 기지는 곧 나타났다. 베르킨게토릭스의 전갈에 응하여 240,000명 이상의 갈리아 구원병이 알레시아 주변에 집결하였다.

케사르는 다량의 식량과 식수원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레시아로 향한 포위전을 조용하게 계속하였다. 케사르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세

번에 걸친 지원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기아 상태를 지연시키기 위해, 베르친게토릭스는 여자와 어린이들을 알레시아로부터 내보낼 것을 시도하였으나, 케사르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알레시아의 상황은 이제 절망적이었다. 더 이상의 전쟁으로부터 주민들을 구하기 위하여 베르친게토릭스는 항복하였다(그는 후에 케사르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로마로 보내져, 그 곳에서 처형되었다). 이로써 갈리아 지방에서 반역의 근원이 제거되었고 대부분의 골 부족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하였다.

로마의 내전

■ 기원전 49년 1월 11일, 루비콘강 도하

원로원의 소환 명령을 받자, 케사르는 곧 루비콘강으로 이동하였다. 야간에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1개의 레지온 부대에 추가하여, 그는 트란스알파인 골 지방에 8개의 레지온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모두 합치면 1급 수준의 용사 40,000명과 20,000명의 예비 부대 및 기병부대를 가지고 있었다.

폼페이와 원로원이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탈리아내의 2개의 레지온과, 스페인의 7개 레지온, 이탈리아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8개 이상의 레지온 및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스 등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10개 이상의 레지온과 그에 상응하는 예비 부대였다.

케사르는 이와 같은 전투력과 물자의 열세를 골 지방에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역동성(에너지)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는 도중에서 신병을 모으고 강화하면서 아드리아 연안을 따라 신속하게 행진하였다.

폼페이와 대부분의 원로원 의원들은 남부 지역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지지자를 구하기 위하여 로마를 버리고 떠났다.

케사르가 유일하게 접한 좋지 못한 소식은 전에 폼페이의 부관이었다던 가장 유능하고 신뢰하고 있던 라비에누스가 폼페이 편으로 도망한 것이었다. 케사르 휘하의 모든 다른 지지자들과 레지온 부대들은 충성을 굳게 맹세하고 동요가 없었다.

■ 파르살루스 전투, 기원전 48년 8월 9일

마침내 폼페이는 수적으로 열세한 케사르의 군대를 공략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포진하고 있는 양진영 사이의 평원에 전투대형을 편성하였다. 케사르도 곧바로 전투에 임하기로 결심하였다. 좌익을 에니페우스강의 가파른 절벽 쪽으로 붙여 안전을 도모한 케사르는 위험한 부분이 7:1의 열세한 기병이 위치한 우익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그는 레지온 부대를 통상적인 3선 대형으로 구성하면서 약 2,000명의 6개 대대를 우익 후방의 방호를 위하여 남겨 두었다. 그는 일반적인 전투대형을 형성한 폼페이군의 전선에 상응하기 위하여 본대의 대대간 간격을 확장시켜 배치하였다.

남겨둔 6개 대대는 기병 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익의 후방에 위치시켰다. 제3선의 부대는 그 앞의 2개 선의 부대들에 대한 예비로 남겨 두었다. 케사르 자신은 처음에는 제4선 부대라고 불린 우익 후방의 6개 대대에 위치하였다.

전투 배치 완료 후, 케사르는 앞의 1, 2선 부대들로 하여금 움직임이 없는 폼페이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충격이 가해지자 케사르의 소규모 기병부대를 향하여 폼페이는 궁수, 창수부대들의 지원을 받는 기병 부대를 기동시켰다.

케사르의 소규모 기병부대는 완강하게 싸웠으나 수적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다. 결정적인 순간에 케사르는 6개의 대대를 전진하는 폼페이군의 기병 부대 측방으로 투입하였다. 이 대대들은 당황하는 폼페이군의 기병부대들을 흠으면서 압박을 가하여, 궁수와 창수부대들을 살육하고 폼페이

군의 중심부대 좌측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 때 케사르는 제3선 부대를 기동시켜 그 앞의 1, 2선 부대들 사이로 이동시켜 폼페이군 레지온의 전방을 향하여 돌진시켰다. 6개 대대의 기습 포위와 결합된 이 공격은 폼페이군의 저항을 격파하였다. 폼페이와 그의 군대는 기지로 후퇴하였다. 케사르는 쉬지 않고 압박하여 기지를 유린하고 부하들에게 약탈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 붙였다.

폼페이는 변장하여 30명의 기병부대원을 데리고 해안으로 도주하여 배를 타고 이집트로 갔다. 이 결정적인 전투에서 케사르의 손실은 사망 230명, 부상 2,000명이었고, 폼페이는 사상자 15,000명, 포로 24,000명이었다. 그리스와 아시아의 로마 속주들은 곧바로 케사르를 지지하였다. 아프리카의 유바와 폼페이 지지자들만이 케사르에 저항하였고 이집트와 시끄럽던 스페인만이 아직 불분명하였다.

로마-파르티아 전쟁

■ 기원전 54~53년. 카레 전역

위 전역에 로마군이 연루됨으로써 크랏수스로 하여금 파르티아로 진군하여 전역을 치르게 하였다. 유프라테스강을 도하한 직후, 크랏수스와 그의 39,000명의 군대는 카레 부근에서 규모 미상의 기병 부대를 지휘한 수레나스에 의하여 기습공격을 받았다.

준사막의 평원지대에서 포위당한 로마군은 파르티아의 기병부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방진 대형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수레나스는 접근전을 피한 채, 다량의 장거리 화살을 퍼부으면서 화력공격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전통의 화살을 다 발사한 분견대의 각 궁수들은 새로운 부대로 대체되었고 그들은 낙타대열이 운반한 화살을 보급 받기 위하여 뒤로 물러났다. 적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로마군은 태양열과

식수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였다. 크랏수스는 그의 아들 푸블리우스 크랏수스에게 6,000명의 레지온 병사와 궁수부대를 주어, 보이지 않게 로마군을 괴롭히는 적들을 발견하게 하였다.

파르티아 기병부대는 후퇴하여 파블루스 크랏수스의 분견대를 본대로부터 유인하여 상호 연락을 못하게 절단하고 포위 공격하여 유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본대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었다. 4,000명의 부상자는 파르티아군에게 유린되도록 방치한 채, 일몰 시간에 크랏수스는 철수하여 서쪽으로 향했는데, 그 다음날 그의 부대도 수레나스에 의하여 궁지에 몰렸다.

이 전투를 계속할 것인지를 숙의하는 중에 크랏수스는 배신을 당하여 살해되었다. 그후 수일 동안 로마군은 후퇴를 계속하였고 파르티아군은 공세를 계속하였다. 5,000명 이하의 로마군만이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돌아왔고 10,000명은 포로가 되어 파르티아의 노예가 되었으며, 나머지는 처형되었다.¹⁾

(다음호에 계속)

註

- 1) 카레 전역은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불필요했던 로마군의 침공이 파르티아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증오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파르티아가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하였다. 군사적으로는 지금까지 무적의 로마 보병부대를 기병부대가 제압하였다는 것이다. 충격 행동에 비하여 기동과 화력이 우세함을 보인 예인테, 중동 지역에서 기마 궁수의 우위라고 하는 현상의 징조였다고 할 수 있다.